

이슈브리프

No. 2025-21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아산정책연구원

2025-07-24

지난 3월 4일,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Renewal of the American Dream)”이라는 제목의 국정연설을 통해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미국에 진출한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철폐,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등에 대한 통제권 확보, 강력한 반이민 정책, 그리고 주요 지역분쟁의 조기 종식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면서 미국의 국가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Pew Research가 2025년 1~4월 사이 세계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중 19개국에서 절반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고, 미국의 동맹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문제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NATO 회원국인 영국(62%), 프랑스(78%), 독일(81%)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

요 동맹국인 일본(61%), 한국(67%), 호주(77%)의 응답자 상당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응답자의 91%가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불신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실시된 동일한 내용의 조사와 비교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 경우는 남아프리카, 인도,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터키 등 5개국에 불과했으며, 상승폭도 그리 크지 않았다. 미국의 한 평론가는 최근 『New York Times』에 기고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처럼 보이기 시작했다(Trump’s America is Beginning to Look More Like China)”는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년 4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BRICS 외교장관 회의장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오랜 기간 자유무역의 중심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관세를 조건으로 각국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만약 침묵하고 타협해 물려서기를 택한다면 불량배(霸凌者, bully)가 더 많이 요구하도록 만들 뿐”이라며 미국을 가리켜 ‘불량배(bully)’라고 맹비난했다. 과거 이러한 발언에 공감하는 자유주의 체제의 국가는 거의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Financial Times』의 수석논설위원인 마틴 울프는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타협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국은 이제 서방의 적(The US is now the enemy of the west)”이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판이 하락하고, 국제적 지도력이 의심받는다 해도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트럼프 행정부의 성적표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미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함으로써 미국발 ‘관세전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본격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 ADP(Automatic Data Processing)의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6월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3만3천 명 감소하여 2023년 3월 이후 첫 감소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칫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모두 망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러시아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강대국 간의 물밑거래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월 불법 이주자 단속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국내적 분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늘날 미국의 안정과 번영의 가장 큰 동력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체제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미국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했고, 이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 냉전을 서방진영의 승리로 종식시켰다.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될수록 그 피해는 미국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앞에서 언급한 왕이 외교부장의 비난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계산된 도전이다. 미국의 리더십이 공백으로 남을 경우, 그 공백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세력이 메우려 할 것이고, 일부 동맹국들은 전략적 균형 차원에서 이들과의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다.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는 "중국을 유럽연합의 동반자로 간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국의 리더십 공백은 역설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잦은 말 바꾸기와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폄훼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이후 시대에서도 미국의 지위 회복에 걸림돌로 남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을 비롯한 각종 국제적 쟁점에서 자신의 발언을 수시로 뒤집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예를 들어, 그는 올해 4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더해 각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후 이를 7월 8일까지 '유예'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호관세를 기존의 24%에서 30~35%로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우리는 한국에 군사를 비롯해 수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호의에 걸맞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체제가 북한을 통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것을 저지하는 방

파제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생존하고 발전해왔기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 역시 보장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동맹국을 향한 발언은 모욕적인 수위를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을 "끔찍한 사람들(terrible people)"이라 언급했고, 캐나다 총리를 "51번째 주의 주지사"라고 조롱했다. 또한, 캐롤라인 레빗 백안관 대변인은 프랑스 정치인의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 달라는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오직 미국 덕분"이라는 언사를 퍼붓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이 더이상 존경받는 리더가 아닌, 공포와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도록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협력' 대상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여기며, 강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NATO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지출하라고 압박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단방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으로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주한미군 감축까지 언급한 점은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을 흔드는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지역의 천연가스 송유관 사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 발전 계획에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동맹국이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의 동맹 폄훼와 흔들리는 안보공약, 그리고 미국 내 인센티브의 축소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동맹국이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할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를 선도하던 국가에서, 국제 규범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의 주체로 전락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미국은 위대해지기는커녕 초라한 독불장군으로 위축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국제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이고, 이는 미국식 일방주의의 탈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우방 및 동맹국들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눈과 귀를 열고 다른 의견들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맹국들이 공평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안보 공약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대신 어떤 대안이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최대의 공동이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 스스로 세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과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동맹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가치의 리더' 자리에 복귀해야 한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였던 조지프 나이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하드 파워(Hard Power)' 이상으로 가치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있었기에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라는 각국의 인식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동력이었음을 상기해야 하고, 이제 그 수호자의 역할을 다시 떠맡을 의지가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단지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제공하는 책무를 기꺼이 담당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 국제 보건,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공급망 안정성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미국은 예측 불가능성과 압박 위주의 정책을 통해 거래의 우위에 서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당당하고 투명성 있는 협력 파트너로 거듭남으로써 '두려움과 경멸(fear and contempt)'이 아닌 '두려움과 존중(fear and respect)'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주도세력이 없는 국제질서는 모두를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미국에도 미친다는 '킨들버거의 함정(Kindleberger Trap)'의 교훈을 미국은 이미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40년대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미 경험했다. 단기적 거래와 이익을 넘어선, 장기적 비전과 국제 공동체 의식으로 무장한 변화만이 이러한 위험을 막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